

양돈산업 발전 T/F팀 본격 운영

농림부 3개월간 발전대책 집중 모색 생산비 절감·질병 최소화 등 대책 마련 주력

양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'양돈산업 발전 T/F팀'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.

농림부는 FTA 추진과 사료 값 폭등, 가축분뇨 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양돈농가의 경영이 악화일로에 농임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양돈업계 전문가 등 범 양돈인이 참여하는 '양돈산업 발전 T/F팀'을 구성했다. T/F팀은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집중 운영되어,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, 질병피해 최소화, 시장확대 등 주요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.

양돈산업 발전 T/F팀(팀장 차관보)에는 양돈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그룹과 실무작업단(단장 이상길축산국장)을 두고, 실무작업단은 축산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괄기획반과 경영지원반, 유통방역반으로 나누어 반별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별 쟁점정리 및 세부계획안을 작성해 나가기로 했다.

한편 총괄기획반은 △한국형 우량종돈 개발 △AI센터 관리개선 △적정사육기준 현실화 △양돈교육 활성화 △FTA 피해보전제도 등을 검토하고, 경영지원반은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확대 수입△사료원료의 할당관세 적용확대 △자조금 정부지원한도 개편 △돼지생산안정제 도입여부 △자연순환농업 활성화방안을 검토하며, 유통방역반은 △육질등급제도 정착

방안 △돼지생산이력제 도입여부 △콜레라청정화 방안 △소모성질환 대책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.

이번 T/F팀에는 농림부와 양돈협회, 농협중앙회, 종축개량협회, 사료협회,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, 축산과학원, 국립수의과학검역원, 축산물등급판정소, 양돈조합 등 관련단체 및 기관 담당자들이 대거 참여한다. 이와 관련 농림부는 지난 12월 4일 T/F팀 총괄기획반 1차 회의를 축산정책과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향후 추진과제 및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. **양돈**

